

尹, 9월 정상회담 30차례...북핵 공조에 엑스포 유치활동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10여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
다자회의 계기 릴레이 회담
글로벌 중추 국가 책임 외교 강화
엑스포 투표 두 달 앞두고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연달아 참여하는 다자 회담을 계기로 최소 30차례 이상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선 국제 협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달에만 30여 회에 달하는 양자 회담을 한다"며 "현재 조율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오는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도중 10여 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 기간 아세안+3 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제도, 인도, 스페인,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의 정상들과 틈틈이 회담하게 된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

서 "아세안 계기에 캐나다, 라오스와, G20 정상회의 계기에 방글라데시, 코모로와 각각 양자 회담이 추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순방 계기에 열린 양자회담 일정은 현재까지 14개"라며 "현재 약 6개 국가와 추가로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부연했다.
회담을 조율 중인 6개국 중 중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 때마다 시간을 쪼개 외국 정상들과 교류해왔다. 특히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는 이들 만에 13개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다자회의 참여를 계기로 한 양자 회담만 50차례 이상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릴레이 양자 회담에서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11월 28일)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엑스포 유치전뿐 아니라 (회담 상대국들과) 올해와 내년 이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양자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재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대책 마련... 박대출 국민의회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검찰 "이재명 2차례 소환 불응 유감"

"단식으로 조사 지장 초래"
"국회 일정 등 검토해 절차 진행"

검찰이 4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가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하고 이 대표에게 조속히 소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각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재판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검찰 간 소환조사 일정을 둘러싼 기

싸움으로 조사가 연이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단식투쟁에 들어간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향후 조사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달 23일 쌍방을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검찰과 소환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고, 결국 8월 30일 소환조사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재차 이 대표 측에 9월 4일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이 검찰에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이달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번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일엔 이 대표가 돌연 "4일 오전에만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며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낼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동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중대범죄 국기문란 행위"

"방송통신 심의 엄중 조치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격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관

련 질의에 "돈을 받고 조작을 하는 게 가짜뉴스의 악순환 사이클이다.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특정 정권에 편향된 매체들이 방송하고 환류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뉴스타파 보도는)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윈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 책

임이 애매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만배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동 전국연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5.4%...2.2%p 하락

리얼미터 조사...부정 평가 61.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하락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달 28일~이달 1일 7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

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p포인트(p) 내린 35.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한 주 만에 소폭 반등(35.6%→37.6%)했다가 다시 한 주 만에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p 오른 61.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에서 59.4%로 떨어졌던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한 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6.4%p ↓), 대전·세종·충청(6.1%p ↓), 서울(3.3%p ↓), 대구·경북(2.3%p ↓), 부산·울산·경남(2.0%p ↓) 등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인천·경기(2.0%p ↑)는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20대(9.8%p ↓), 60대(2.7%p ↓), 30대(1.7%p ↓) 등에서 내렸고 40대(1.4%p ↑)는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